

미국, 10년만에 희토류 채굴 “시동”

Elk Creek 광맥 상당량 희토류 매장 ... 중국의존도 낮추고 독점 타파

미국이 10년만에 희토류 채굴을 재개할 전망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퀀텀희토류개발>은 미국 Nebraska 소재 Elk Creek 광맥에 상당량의 희토류와 특수강 소재인 나이오븀(Nb)이 함유돼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워싱턴타임스가 8월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퀀텀희토류개발은 2010년 말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이오븀과 희토류의 매장 가능성을 전망한 Elk Creek 인근 지름 4마일(6.4km)이 넘는 땅을 사들여 각종 조사를 진행했다.

퀀텀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요 광물의 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 하나로 Elk Creek 채굴이 이루어지면 미국은 10년 만에 희토류 채굴을 재개하는 것이 된다.

미국은 희토류 생산과정에서 방출되는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2002년 희토류 생산을 중단했으나 중국이 2010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희토류를 자원무기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이자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희토류 생산 재개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환경단체로부터도 퀀텀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고, 희토류를 생산하다 폐쇄됐던 California 소재 Mountain Pass 광산도 다시 문을 열기 위해 Molycorp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지, 군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채용되는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Elk Creek 채굴은 희토류의 중국 독점체제를 타파하고 미국의 중국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타임스는 보도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08>